

너랑,
노원

일곱번째
여정





“이 책을 여는 순간, 노원은 여행지가 됩니다.”

《너랑, 노원》은 매 호 노원구에 소재한 전철역 혹은 대학을 선정하여 여행자의 시선으로 그 주변을 돌아보고 담아내는 비정기 연속 간행물입니다.

2014년 9월 페이스북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창간호 출판 후,
2017년 9월 출간한 4호부터 《너랑, 노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창간호 : 상계역, 서울여대
2016년 07월 |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2호 : 당고개역, 서울과학기술대
2017년 01월 |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3호 : 하계역, 삼육대
2017년 04월 | 너랑, 노원 4호 : 중계역, 광운대
2018년 09월 | 너랑, 노원 5호 : 노원역
2019년 12월 | 너랑, 노원 6호 : 녹천역, 육군사관학교
2024년 05월 | 너랑, 노원 7호 : 태릉입구역

앞으로도 계속될 노원구 내 14개의 전철역과 7개의 대학 주변으로 떠나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며

엮은이의 말

2020년

우리 삶의 큰 챕터로 남은 몇 년이 있었다. 여느 다른 유행병처럼 잠깐 스쳐 지나갈 줄 알았지만, ‘코로나’는 주인공 행세를 했다. 이 또한 우리 삶의 일부로 생각하며 코로나와 2020년 노원구의 모습을 책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5월, 7호 집필을 위해 새로운 멤버를 영입했고 주제는 태릉입구역 주변과 코로나가 되었다. 6월, 집필진은 마스크를 쓰고 취재, 인터뷰 그리고 비대면 회의를 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전염병의 기세에 인터뷰 진행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만남은 계속 지연되었고 거리두기는 강화되었다. 집필진은 계속 미루어지는 일정에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들에게 사과를 이어갔다.

2021년

마스크가 익숙해질 때쯤 2021년 새해가 찾아왔다. 이미 시간이 흘렀고 7호를 인터넷 배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대면 취재 및 인터뷰 진행의 어려움으로 완성하지 못한 원고들도 있기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내부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또 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한 해가 지났다.

2022-24년

2022년은 멤버들이 거의 모두 한 번씩 코로나에 걸렸으며,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내었다. 그리고 2023년 연말, 우리는 다시 마음속 깊숙이 넣어뒀던 일을 마무리 지으려 모였다. 11월 즈음 원고를 재정비 하고 인쇄소에 인쇄 문의를 드렸다. 그렇게 23년을 마무리 짓고 24년도 이번 7호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번 7호에는 공동동 국수 거리를 시작으로, 태릉입구의 오래된 맛집, 예술가들, 도깨비시장 이야기를 담았다.

코로나 이후 되찾은 소중한 일상에서, 독자들이 다시금 노원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길 바란다.



목차



5
들어가며

역은이의 말
노원구 지도
태릉입구역 지도



12
태릉입구역 주변

공릉동 국수거리 이야기
태릉입구의 터줏대감
태릉입구의 낮과 밤
예술가들
맛 나와라 푹딱! 도깨비시장 식도락 탐방



82

특집

코로나 그리고 노원구

100

마치며

편집후기



수락산역

상계동

당고개역

마들역

노원역

상계역

중계동

녹천역

중계역

하계동

월계역

하계역

공릉동

월계동

공릉역

광운대역

화랑대역

석계역

태릉입구역



태릉입구역 주변

태릉입구역 주변 목차



1

공릉동 국수거리 이야기	12
공릉동 국수거리	14
국수거리의 국수가게들	16
국수거리의 현재	18



2

태릉입구의 터줏대감	24
태릉 풍천 장어	26
장미삼계탕	32



3

태릉입구의 낮과밤	40
서울생활사박물관	44
경춘선숲길	46
책인감	52
중랑천 장미공원	54



4

예술가들 _____ 56

서울여성공예센터 _____ 58

로컬랩의 예술가들 _____ 64



5

맛 나와라 똑딱! _____ 70

도깨비시장 식도락 탐방



공릉동 국수거리 이야기

글 맺은 날 2020.8.30

사진| 송유화

글, 취재| 류상화, 박소희





마을 잔칫날이면 함께 어울려 기쁨을 나누던 음식, 국수. 국수가 잔칫집의 대표 음식이 된 이유는 기다란 면발이 장수를 의미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신부의 인연이 길게 이어지기를, 제사에서는 추모의 의미가 오래가길 바라며 국수를 먹곤 했다. 이렇듯 국수 한 그릇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삶은 소면 위에 뜨거운 육수를 부어 만드는 국수는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되었지만 후루룩 넘어가는 면발과 감칠맛 나는 국물로 우리의 배를 따뜻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 공릉동에 국수거리가 있다. 1980년대 공장 노동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며 시작된 공릉동 국수거리. 이곳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1 공릉동 국수거리

공릉동 국수거리 찾아가기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연세방병원부터 공릉초등학교까지 1.3km)
접근방법 |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1번 출구, 공릉역 3번 출구 방면

공릉동 국수거리의 시작

1980년대 산업화 시대, 공릉동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던 별치국수 가게들이 있었다. 공릉동의 국수는 택시 기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욱 유명해졌고 국수 가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그렇게 연세방 병원 부터 공릉초등학교까지 1.3km에 달하는 국수 골목을 형성해 공릉동의 맛집 명소가 되었다. 이후 노원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유명세로 노원구에서는 2012년 10월 15일에 공식적으로 공릉동 국수거리로 지정했다. 지정 당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노원구에도 음식문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전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음식 명소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노원구 차원에서 태릉부터 경춘선 숲길, 그리고 국수거리까지 이어지는 테마 관광코스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국수거리 활성화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국수거리의 유명세는 홍보 부족과 맛집 경쟁에 밀려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국수거리를 다시 부흥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국수거리 활성화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

<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서 주변 대학과 손잡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두는 사업이다.

국수거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와 노원구, 인덕대학교가 함께 추진했다. 프로젝트명에 1·7·3이란 공동국수거리의 도로명 '173가' 길에서 따왔다.

프로젝트 내용은 가게와 국수거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은 가게 간판 제작, 국수 포장지 제작 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 국수거리 차원의 도움으로는 가로등 광고물 방지 스티커인 그래픽 작업과 골목상권 홍보를 위한 홍보포스터 제작이 있었다. 사업의 결과로, 국수거리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가게마다 붙어있는 '공동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스티커와 가로등에 붙어있는 '국수거리 환영' 포장 그래픽이다.

